

다산포럼

흡연과 건강 담론



황상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학사

지금부터 꼭 50년 전인 1964년 1월 11일 이른바 '테리 보고서'가 발표됐다. 정식 명칭은 '흡연과 건강. 공중보건국장 자문위원회 보고서'다.

그런데 당시 미국 보건·교육·복지부 공중보건국장으로부터 보고서 작성을 총 지휘한 루서 테리의 이름을 따서 '테리 보고서'라고도 부른다. 이 보고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념비적인 공중보건 관련 문서로 인정받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즉 해악에 대한 것이다. 테리 보고서가 흡연에 관한 최초 보고서는 아니다.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역학 연구와 병리학 연구를 통해 흡연의 폐해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1957년에는 당시 공중보건국장 르로이 버니가 흡연과 폐암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천명하기도 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반대는 대개 담배 회사 측으로부터 나왔다. 담배회사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는 학자들이 흡연의 폐해가 확실치 않다는 논문을 꾸준히 발표할 것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테리 국장에게 흡연과 건강 사이의 관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즉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1962년 11월부터 1년 남짓 7000여 편의 관련 논문과 자료들을 세밀히 검토해 1964년 1월 11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386쪽으로 구성된 보고서의 끝자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흡연자의 사망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70% 더 높다. 둘째,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는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높다. 셋째, 흡연과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심장병 사이

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 내용 중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거의 없었지만, 보고서의 위력은 대단했다. 그 뒤로도 담배회사가 여러 차례 반격을 시도했고, 간혹 애연가들이 흡연권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대체는 이미 기울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보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여 년 후에 비슷한 조치가 이어졌다. 고속버스에 금연석이 마련된 것은 1980년, 지하철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 것은 1996년 등이다. 담배와 관련된 풍속도가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 크게 변한 것이다.

미국 공중보건국은 최근 테리 보고서 발간 50주년을 맞으면서 내용이 훨씬 강화된 새로운 보고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50년간의 진보'를 발표했다. 분량도 978페이지로 크게 늘어났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흡연이 폐암 외에도 제2형 당뇨병, 류머티즘, 발기 부전, 시력 감퇴, 간암, 직장암, 선천성 입천장 파열 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천명했다. 그동안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에서 '원인

이다'로 바뀐 것이다. 흡연의 해악은 이제 학술적으로 재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또한 금연 운동과 조치가 실제 사망률 감소와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폐암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2003년을 고비로 감소 추세다. 폐암 치료 효율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흡연율이 감소한 덕분이다. 금연운동이 지난 50년 동안 크게 성공을 거둔 것은 흡연의 해악이 명백히 밝혀진 데에 기인하지만, 그와 더불어 '건강 담론'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사람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된 것이다.

애연가들이 흡연권을 주장하기 어렵게 된 것도 간접흡연의 폐해를 내세우는 비흡연자들의 목소리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 담론'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금연 천당, 흡연 지옥'을 외칠 정도로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띠어오 과연 괜찮은 것인지?

기고

아이들 건강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



김광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영·유아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어린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더불어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3년 동안(2009~2012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26.6% 증가했고, 광주·전남·전북·제주 소재의 어린이집도 최근 3년 동안 8%(4275~4631개소)증가했다.

건강한 어린이는 '국가의 초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성장단계에 놓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바른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워킹맘(일하

는엄마를 부르는 말)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맡긴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들의 먹거리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세살버터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영·유아기는 음식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관심이 필요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정립해주어야 하는 때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급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취학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11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3년까지 전국에 88개를 설치·운영 중이고, 2014년에는 2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100개소를 추가, 총 188개소를 전국적으로 설치·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규제정책이 아니라 사각지대(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시설)에 놓인 어린이집 등의 영양관리와 저소득층 급식 관리 지원원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정책 사업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식품관련 전공자들(영양사, 위생사 등)이 지역 내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재료부터 급식·조리시설에 대한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린이들에게는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맞춤형 영양식단(영령별·끼니별)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원장·교사·조리원에게는 급식소 안전관리방안 및 표준제시과 제공뿐만 아니라 맞춤형 위생·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 86.8점으로 센터 지원내용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주변시설에 추천할 의향도 93.5%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특히 조리원의 조리기구의 위생적 취급 등 개선도를 측정한 모든 항목에서 90점 이상으로 조사됐고, 어린이의 식습관(식사 전 손씻기, 편식 감소)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됐으며, 급식 관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을 선도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경우 16개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5개소를 시·군·구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국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어 어린이 급식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관리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의 먹을거리 문제 해결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어느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뿐만 아니라 우선시 되어야 하며 모든 어린이들이 평등하게 급식 안전관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미흡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社說

AI 창궐하는데 방역복 불량제품이러니

AI가 전담에 유입돼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해당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보호복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의 태반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나 방역 및 살처분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무원들은 보호복의 지퍼가 벌어지고, 방진 마스크에 이상이 생겨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AI가 첫 유입된 해남군 송지면 오리농장과 AI 의심지역인 나주 세지면 오리농장 등지에서 살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따르면 작업 중에 지퍼가 벌어져 방역복이 벗겨지거나 마스크의 코 고정핀이 떨어져 이를 다시 착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게다가 흡사나 발생할지 모를 2차 감염을 우려해 불량 보호복 위에 개인당 2~3개씩 방역복을 겹쳐 입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당 공무원들은 "입손이 달려 방역복이 잘 풀려도 하기도 바쁜 상황에 보호복 등을 갈아입느라 작업이 더 느려진다"면서 불량품을 공

급한 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나타냈다. 해당 보호구 세트는 일회용 보호복 1벌과 마스크, 고글, 라텍스 장갑, 덧신으로 구성돼 있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제품 설명서에 적고 있다. 이 제품은 모 대기업이 질병관리본부에 개당 9660원에 납품했으며, 본부 측이 일선 지자체와 방역 당국에 지급한 제품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사들인 50만개의 보호구 가운데 절반인 25만 개 가량을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아 해당업체와 유착 의혹 등을 사왔다. 문제는 2차 감염을 막아야할 장비가 불량품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검수를 제대로 하고 납품을 받았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수의계약에 하자과 유착이 없는지, 제품 검사 과정 등 납품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현장에서 총이 고장 난 것과 같은 우(漚)를 다시금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영대회 조작사건 선고유예 의미 새겨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공문서 위조사건 당사자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위조 자체가 선고유예 범법행위이지만 양형을 크게 낮춘 것은 세계대회이니만큼 성공 개최를 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법은 최근 지역적인 관심사였던 이 사건의 피고인인 김윤석 세계수영선수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유치위 소속 6급 공무원 한모(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와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1년6월)에 비추어 낮은 형량이다.

법원은 국제대회 유치가 아무리 절박했다라도 피고인들이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명백한 범법으로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택한 것은 세계수영선수권 유치를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인정하고, 성공 개최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항소 등 법적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큰 파장을 불러왔던 공문서 위조사건은 일단 큰 산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를 둘러싸고 정치적 시비나 책임 소재 가리기에 매달린다면 소모적인 논쟁에 그칠 뿐이다. 이제는 세계수영선수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화 준비에 몰두하는 게 현명한 일이다.

사건이 불거질 당시 행·재정적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보였던 정부도 법원의 판단을 중시하기 바랐다. 어렵사리 유치한 수영선수권대회를 원만하게 치러내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광주시와 지역민들은 대회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 2015 광주[대회와 함께 세계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창조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광주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여기는 정상!” 1977년 9월 15일 낮 12시 50분. 한국 원정대 2차 공격조 고상돈(1948~1979)과 세르와 캄바 노르부는 세상에 가장 높은 봉우리에 섰다.

고상돈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베이 스킵프에 있는 김영도 대장에게 무전을 날렸다. 그리고 그는 성경과 원정 한해 전 설악산 동계훈련 중 눈사태로 세상을 떠난 대원 세 명의 사진을 묶은 후 산했다.

등정 성공에 따라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에 오려 나라가 됐고, 두 사람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밟은 56, 57번째 산악인으로 기록됐다.

원정대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80km 떨어진 램사르부터 캐러밴을 시작해 고박 21일간 380여km를 걸어 베이 스킵프에 도착했다.

고상돈은 후일 원정 과정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험한 설산을 오르는가? 돈이나 명예 때문인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저 아래 세상에서도 땀흘려 일하면 얼

마든지 얻을 수 있다. 나는 지금 에베레스트라는 산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인간의 한계와 맞서 싸우는 것이다. 내가 정복하려는 것은 이 산봉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최근 네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베이 스킵프(B.C) 트레킹 취재를 다녀왔다. 에베레스트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칼라파타르(해발 5550m)와 원정대의 전진지기인 베이 스킵프가 최종 목적지였다. 전문 산악인이 아닌 평범한 트래커가 걸어서 오를 수 있는 최고 높이의 썸이

다. 감풍이 불아치는 칼라파타르에서 바라본 하늘을 찌를 듯 뾰족 솟은 수많은 설산 가운데 에베레스트는 단연 돋보였다. 하얀 눈을 머리에 인 다른 산과 달리 에베레스트는 검은 빛깔이었기 때문이다.

원정대 캠프가 설치됐던 베이 스킵프 지리는 비시존이어서 텐트 대신 많은 돌들만 널려있어 채석장에 와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던 많은 산악인의 꿈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송구목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에베레스트 B.C

NGO 칼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



강대욱 성공관유도회 광주시본부 회장

우리나라는 오천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외침을 막아낸 강인하고 슬기로운 고유 민족국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드물게 불과 40여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음에도 산업화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 사회적 혼란과 성숙되지 못한 의식으로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사리사욕만 앞세우는 속된

이기심도 팽배해 있다. 그러한 이유로 국민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은 실정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훌륭한 덕목이 잘 이행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있어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높은 수준의 도덕성에 바탕을 둔 의식개혁으로 윤리와 도덕적 교양을 겸비해야 한다. 나와 함께 남도 배려할 줄 아는 대동사회가 되려면, 만고불변의 생활철학인 유교적 가치관과 성현의 가르침으로 참다운 선비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이미 오천년 전 공맹(孔孟)이 설파한 “민본주의(民本主義)와 무항산 무항속(無恒産

無恒心·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뜻)”은 결국 “경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사회적 안정도 없다”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 말은 21세기 경제지략(智略)과 일치하니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편타당한 진리인 것이다.

지금 세계적인 석학들은 서구 산업자본주의의 병폐를 보면서 앞으로 세계질서를 잡아 나아갈 대안으로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유교자본주의 체제가 주목하고 있다.

근검절약과 근면성실, 선공후사(先公後私·공익을 먼저 추구해야 된)와 추기급인(推己及人·자기중심적 생각을 버려야함) 등의 유교적 가치는 대동화합의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숭상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선 수기조선(修己操身·내 몸을 닦아 몸가짐을

조심함)에 힘써 사회 교화를 나아가야하며 이것이 바로 수기치인(修己治人·내 몸을 닦아 남을 교화함)의 길이다.

특히 미래 국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범국민적으로 예의생활실천운동, 예의절치회복운동, 인성회복을 통한 윤리도덕회복운동을 서둘러야 한다.

배려와 공동선(共同善) 추구를 통한 풍속순화운동, 예(禮)와 효(孝) 사상교육을 통한 민생활의 일상이 되도록 예절교육도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윤리도덕 회복운동을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새마을 운동과 같은 국민운동 차원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예의절치가 존중되는 새로운 기풍을 세우야 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택시영업증 더 크게 만들면 범죄예방에 도움될 것

회사 일 때문에 밤늦게 야근을 하고, 전철이 끊겨서 불가피하게 혼자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아근이든 개인적인 불일치든 밤에 혼자서 택시를 타는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불안감을 갖는건 당연하다. 또한 운전에서도 방어운전이 있는 것처럼, 범죄피해를 막는 방법으로써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가급적이면 일찍 들어갈려고 하지만 회사 일이 늦을 경우엔 정말 어쩔수 없

이 늦게 택시를 타야만 한다.

그나마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택시를 타고 난 뒤에는 차 번호를 문자로 찍어 집으로 보내곤 한다. 그리고 집에 가는 동안 운전기사가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통화하면서 현재의 위치나 집에 도착 예정시간 같은걸 말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차를 타고 보면 앞에 붙여놓은 허가증이 너무 작아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꼭꼭 지켜가야 하는 내내 가슴을 졸이며 갈 때도 많다.

그런데 얼마 전 대만에 갔을 때 택시를 이용했는데 우리와는 대조되는 것이 한 가지 눈에 띄었다. 대만 택시의 앞좌석에는 우리의 두 배 정도 되는 크기의 택시영업 허가증이 붙어 있었다.

또 조수석 뒤편에도 같은 크기의 허가증을 붙여 놓아 뒷자리에 앉아서도 차량번호 등 공공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안했다.

그걸 보고 느낀건데 우리도 택시운전면허증을 크게 만들어서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에서도 볼수있도록 택시 운전자와 조수석 시트 뒷편에 이걸 크게 만들어 붙여놓을수는 없을까.

그러면 뒷좌석에 탄 승객도 바로 눈앞에 있는 택시운전기사의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굳이 집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더라도 본인의 머릿속에 기억을 해둘수도 있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는 그걸 보고 차량번호는 물론 운전자 이름까지 즉시 집이나 지인에게 전송해서 보낼수 있으니 택시운전자들이 범죄를 꿈꾸지 못할 것이다.

범죄는 당한후 범인을 찾는것 보다 범죄가 발생하기전에 미연에 막는게 가장 좋다. 이런식으로 운전자 정보를 확실하게 비치해 두면 택시기사의 범죄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할것로 본다.

▲좌혜경·광주시 동구 산수2동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培樂</b> 편집국장 <b>奇賢鎭</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 1부 2200-661 문화 2부 2200-651 여론대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본부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부 227-9600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프로젝트 팀 2200-555	문화 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F A X 222-0195> <F A X 227-9500>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